

유통가 총수 지난해 보수 공개 경영환경 따라 수령액도 갈렸다

신동빈 149억, 롯데 계열사 부진에 ↓
정유경 43억, 전년보다 20.4% 증가
이재현 39억, CJ제일제당 급여 소폭 ↑
정교선 23억, 현대백 상여 힘입어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국내 주요 유통·식품 기업 오너 및 경영진의 지난해 보수가 기업별 실적과 경영 환경에 따라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롯데지주·롯데쇼핑·롯데케미칼·롯데웰푸드·롯데칠성음료 등 5개 계열사에서 총 149억93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전년(178억3400만원)보다 15.9% 감소한 수준이다.

이 중 롯데지주에서 받은 보수는 급여 32억원, 상여 10억원 등 총 42억1000만원으로 전년(59억7200만원) 대비 29.5% 줄었다. 급여는 전년 38억원에서 감소했고, 상여 역시 전년(21억7000만원)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계열사별로는 롯데쇼핑에서 36억6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6.4% 증가했지만, 롯데케미칼(22억7500만원, -40.1%), 롯데칠성음료(22억5000만원, -35.6%), 롯데웰푸드(25억9700만원, -0.3%) 등에서는 감소했다. 해당 총보수에는 호텔롯데와 롯데물산 보수는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지난해 급여 24억4600만원과 상여 18억8400만원 등 총 43억3000만원을 수령하며 전년(35억9600만원) 대비 20.4% 증가했다. 이명희 총괄회장과 정재은 명예회장은 각각 11억9100만원을 받았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5.8% 감소한 수준이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CJ제일제당에서 급여로만 39억1800만원을 받아 전년(37억4900만원)보다 4.5% 증가했다. 상여나 기타소득은 지급되지 않았다. 같은 회사에서 손경식 회장은 급여 38억2100만원과 상여 28억4300만원, 복리후생성 지원금 900만원 등을 포함해 총 67억400만원을 수령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약 18% 감소한 수준이다.

CJ제일제당에서는 강신호 대표가 31억7500만원, 그레고리 엽 식품사업부 대표가 37억1000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6월 사임한 박민석 전 대표는 주식매수 선택권 행사 등에 따라 96억5500만원을 수령했다.

정교선 현대백화점그룹 부회장 겸 현대쇼핑 대표이사는 지난해 급여 19억4000만원과 상여 4억7500만원 등 총 23억7900만원의 보수를 받아 전년(20억4300만원) 대비 16.4%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비용 부담 확대 등 경영 환경 속에서 기업별 실적과 성과 반영 여부에 따라 총수 및 경영진 보수가 차별화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식품산단 내 폐기물 선별장 부적절”

하이트진로 현도산단 입지 재검토 촉구
행정소송 진행… 입주기업 반발 계속

청주시가 현도일반산업단지(현도산단) 내 폐기물 선별장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근에 공장을 둔 하이트진로가 입지 재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식품 제조 공장이 밀집한 산업단지내부에 대규모 선별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현도산단은 30년 이상 식품 제조 중심으로 운영된 산업단지, 위생과 청결이 핵심 경쟁력이다. 그러나 폐기물 선별장이 들어설 경우 악취, 분진, 바이오에어로졸 등 외부 오염 요인이 증가하면서 제조 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이트진로 측은 “식품 산업은 단 1%의 위험도 허용되지 않는 산업”이라며 “외부 오염 가능성이 존재하는 환경에서는 품질과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유지 부담과 함께 브랜드 신뢰 훼손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생산’이라는 인식이 형성될 경우 소비자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입지 갈등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해당 부지는 원래 폐기물 매립장 용도였지만, 이후 재활용 시설로 기능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2022년 11월 충청북도가 ‘폐기물 매립장 및 재활용시설’로 용도를 바꾼 데 이어, 2025년 4월에는 ‘재활용시설’로 다시 변경 고시한 것. 이 과정에서 입주기업과 주민 반발이 본격화됐고, 2024년 7월부터 시청과 도청, 공사 현장 등에서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시설 전환이 아니라 운영 방식과 규모가 달라지는 사실상 새로운 형태의 시설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기업 측은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2025년 5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같은 해 9월 기각됐고, 10월에는 행정소송 본안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집행정지 신청도 이어졌지만, 2025년 12월 충청북도 고시에 대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공사는 곧바로 착공됐다. 이후 청주시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항고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신원선 기자

롯데칠성, 핫식스 더킹 파인버스트 선보여

타우린 1000mg 함유해 집중 더해

롯데칠성음료가 에너지 음료 ‘핫식스 더킹 파인버스트’를 출시한다.

롯데칠성음료는 다양한 맛과 향의 에너지 음료를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에너지 음료 선택의 폭을 넓히고 핫식스 브랜드 제품군 강화를 위해 핫식스 더킹 파인버스트를 선보인다.

핫식스 더킹 파인버스트는 에너지와 집중이 필요한 순간에 음용할 수 있으며 타우린 1000mg을 함유했다. 파인애플 과즙 10%를 더해 진하고 달콤한 파인애플

플 풍미가 특징이다.

핫식스 더킹 파인버스트는 355ml 용량에 파인애플을 상징하는 노란색 바탕을 통해 풍부한 파인애플 과즙을 표현했으며, 불사조 모양을 통해 핫식스 더킹의 강렬한 에너지를 담았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핫식스 더킹 파인버스트는 파인애플의 달콤한 풍미와 강렬한 에너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에너지 음료”라며 “다양한 맛과 향의 에너지 음료를 선보이며 소비자의 에너지 음료 선택권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롯데마트, ‘기체제어’ 저장 사과 본격출하

이상기후로 불안한 사과 수급 대응
CA 저장 기술로 신선도 오래 유지
지난해보다 물량 20% 늘려 판매



롯데마트가 기체제어 저장 기술을 활용한 사과를 출하한다. /롯데쇼핑

롯데마트가 기체 제어(CA, Controlled Atmosphere) 저장 기술을 활용한 사과를 본격 출하하며 이상기후에 따른 수급 불안 대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기체제어 저장 온도와 습도뿐 아니라 저장고 내 산소 농도를 낮춰 농산물의 호흡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농산물의 노화를 늦추고 미생물과 곰팡이 발생을 막아 수확 후 수개월이 지나도 갓 탄 듯한 식감과 영양을 유지할 수 있다. 이상기후가 찾아지는 환경에서 농산물 품질 저하와 수급 불안정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이상기후로 사과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

이처럼 사과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롯데마트는 충북 증평의 롯데 신선품질혁신센터 기체제어 저장고에 보관해 온 사과 600톤을 출하한다. 이는 2025년 작황 부진으로 인한 수급 불안을 고려해 지난해보다 물량을 20% 늘린 규모다. 출하 상품은 ‘갓따온 그대로 사과(4~6입/봉/국산)’로 19일부터 1만 7900원에 판매된다. 지난해 10월 수확한 사과를 비과과 당도선별로 13브릭스(Brix) 이상의 고당도 과실만 엄선했다.

롯데마트가 이번에 평소보다 한 달 앞서 기체제어 저장 사과를 출하하는 배경에는 ‘저장 말기’ 수급 불안이 있다. 일반적으로 3~4월은 저장 사과 물량이 줄고 신선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시기다. 특히 2025년산 사과는 수확기 이례적 폭우로 당도와 저장성이 크게 약화된 만큼, 시간이 갈수록 품질 유지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신원선 기자

아워홈, 인천공항서 ‘BTS 더 시티’ 맛 선택

인천공항 유일 F&B 파트너로 참여
BTS 콘셉트 담은 특별 메뉴 운영

아워홈은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BTS THE CITY ARIRANG SEOUL)’ 행사 F&B 파트너로 참여해 인천국제공항에서 특별한 맛과 경험을 선보인다. 인천

공항에서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 행사에 참여하는 기업은 아워홈이 유일하다.

하이프의 ‘더 시티’는 소속 아티스트 콘서트나 앨범 발매 시점에 맞춰 도시 전역에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도시형 플레이 파크’ 행사다. 이번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진행한다. 아워홈은 이 시기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이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마주하는 장소인 인천공항에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브랜드 파트너십을 마련했다.

파트너십 기간 동안 인천공항 제1, 2 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컬러너리스퀘어 바이 아워홈’ 매장에서는 BTS 더 시티 아리랑 서울 콘셉트와 연계한 특별 메뉴를 선보인다.

/신원선 기자

CJ온스타일, KBO 협업 굿즈 첫선

10개 구단 굿즈 미디어데이서 공개

CJ온스타일이 KBO(한국야구위원회)와 올 시즌 협업의 포문을 연다.

CJ온스타일은 KBO와 손잡고 선보이는 10개 구단 협업 굿즈를 오는 26일 ‘2026 신한 SOL KBO리그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에서 최초 공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CJ온스타일은 1200만 야구 팬덤 기반의 스포츠 IP(지식재산권) 비즈니스 확장에 나선다.

협업의 시작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 월드(잠실)에서 열리는 ‘2026 신한 SOL KBO리그 미디어데이 & 팬페스트’다. CJ온스타일은 행사 현장에 팝업 부스를 마련하고 10개 구단 협업 굿즈를 최초 공개한다. 부스에서는 굿즈 전시와 포토존 체험뿐 아니라 야구 콘셉트로 디자인한 네임스티커 프린터 체험 공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시즌 굿즈는 ‘일상 속 우승 기원’을 콘셉트로 직관, 집관, 출근, 여행



CJ온스타일이 26일 KBO 리그 미디어데이서 첫 공개하는 10개 구단 나른 방도스카프. /CJ온스타일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으로 기획했다. 야구 배트·가방 모양의 타일 키링과 핸드타월, 유니폼과 야구공을 형상화한 센터드 사체와 스트레스볼, 구단별 캐릭터로 디자인한 피크니 매트, 방도 스카프, 양산 등 총 12종이다. 굿즈는 오는 4월 9일부터 CJ온스타일 모바일 앱에서 선판매된다.

/신원선 기자